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20,

요한복음 20:1-21:25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20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입니다. 요한복음 20:1-21:25.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21장을 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대화는 매우 필요했지만 당시 베드로에게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비디오 끝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채로 남겨두었던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장사지에서 부활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표지 슬라이드에는 천사가 무덤에서 돌을 떼어낼 때 발생하는 아우라에 무덤 주변의 로마 경비병들이 어떤지 깜짝 놀란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무덤이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그곳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종류의 오라를 알아차렸을지,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이 나가시려면 천사가 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시려고 돌을 치웠는지, 아니면 예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지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돌을 치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부활의 기적이 무덤을 여는 천사의 활동에 의한 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본문이 이 전체 질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보내시려고 돌을 굴러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돌을 굴러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각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관련된 지리적 문제와 기타 신학적인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부활절 일요일에 대해 읽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빈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에게 달려가 상황을 해석하고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공관복음 전통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본 것보다 분명히 훨씬 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그다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다시 만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없어질 것이고, 잠시 동안 당신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당신은 나를 다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2장에서 이 성전을 파괴하라는 언급을 가지고 있으며, 3일 안에 나는 그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맥락에서 그것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물론 사설의 논평에는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지만 분명히 그들은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레나는 시체가 없어진 것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가 될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것이 맞다면 요한은 베드로를 무덤까지 때리고 무덤에 이르렀으나 분명히 거기 서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피터는 나중에 달려왔다. 아마도 그는 몸이 좋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곧장 무덤에 들어가서 그 날에 시체를 묶는 데 사용했던 수의와 세마포 조각을 두 사람

모두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머리에 씌운 천 외에 아마포와 따로 있었더라.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랑하는 제자가 들어가서 20장 8절에 보면 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머물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그때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떠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1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다음 부분, 즉 예수께서 어떻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일종의 위임장을 주시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의 이 부분을 볼 때, 마리아는 두 천사에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천사를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주님을 데려갔고 그들은 그녀에게 “왜 울고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왜 울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찾고 있나요? 그녀는 그 사람이 정원사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혹시 그 사람을 데려가셨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쩐지 혼란스러워서 그녀는 사라진 예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 옮겨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이 아마도 시신을 옮긴 사람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서 그녀에게 단지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분의 음성만 듣는 데서 빠져나와 그분을 향하여 아람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의 랍오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대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여기서도 매우 흥미로운 구별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거나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의 언어는 예수를 그의 백성과 연결하는 동시에 그를 백성과 구별하는 흥미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 여자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뵈었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말하더니

그렇다면 분명히 다음 주 19절에는 한 주 뒤가 아마도 주의 첫날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날이 그 주의 첫날 저녁 같은 날입니까? 그날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모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잠그고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작은 단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활동 때문에 숨어야 했는지, 아니면 단지 유대 지도자들에게 발각될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궁핍한 가운데 은밀히 모이고 있었는데, 분명히 기적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는 손을 보여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본문에 두 번째 커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이해한 바를 전하여 예수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명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무장되어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의 대리인인 예수와 암시적으로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와 예수의 대리인인 제자 사이의 비유를 그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자로 파견되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도 사하여졌느니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를 자비롭게 돌보고, 우리의 사역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명백하게 느끼는 필요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죄 용서와 관련된 십자가에 대해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몇몇 칭찬할 만한 인간 대리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의 기초.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요한의 성령론 자체에 비추어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특히 여기서 요한의 성령론을 성령이 부여되는 방식,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잠시 후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도마라는 사람이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두모라고도 알려진 도마(20장 24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마도 성도들과 함께 모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마스처럼 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으나 도마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습니다(26절).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으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지난번 19절과 21절에 나타나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도마는 예수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실 때에 말하였으되 예수께서는 도마가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하고 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도마가 예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손과 손가락으로 그분의 몸을 살펴보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마는 자신이 본 것에 너무나 놀라서 단순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첫 구절부터 우리가 의심하고 이해해 온 내용,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확증하는 요한복음의 절정적 진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학적 책은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책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고 이제 도마는 단순히 그 진술을 확인하고 이전에 여러 곳에서 일어난 일, 즉 예수가 실제로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을 땅에 가져오시려고 아버지 옆에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 고로 믿느니라.

때때로 이것은 질문으로 강조됩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도 분명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본 후로 믿느냐? 원래 언어로 수행할지 여부를 어느 쪽이든 구두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보는 것, 곧 예수를 보고 믿게 된 것은 그것과 별개로 믿은 사람들과 대조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도마라는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

잠언, 즉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추론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토마스처럼 더 많은 경험적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복음 메시지의 능력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빨간색 글자 중 마지막 글자가 잠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제자인 저자는 일종의 요약을 하고 상자 주위에 리본을 그려서 우리를 위해
포장합니다. 실제로는 끝까지 돌아갑니다. 1장 19절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많은 말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많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을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생각에 이것은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서문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놀라운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글쎄요, 그것은 다소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종류의 포함이 있습니다. 요한은 책의 끝부분에서 그가 처음에 우리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책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했고, 여기 가정법절의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당신이 계속 믿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적어도 동사 시제의 문법에 기초하여 그것이 주석적으로 가능한 입장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한복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 이 진술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은 확실히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확실히 우리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둘 중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견해를 취하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둘 다 사실이다. 우리는 입문 강의에서 복음서는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복음 학자들의 현재 견해를 언급했는데, 그 책은 Richard Balcombe가 편집한 The Gospels for All Christians입니다.

그 책은 복음서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는 교회의 작은 부분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알려진 세계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책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제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즉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일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요한복음은 확실히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 심오한 의미를 숙고하는 데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모든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확실히 복음전도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게 하려고 쓰여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 훌륭한 책을 읽을 때 확실히 믿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20장에서 생각의 흐름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몇 가지 사건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어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지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리고 부활이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소개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GPS 기계나 그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구시가지 서쪽 이곳 총독의 관저에 있는 야파 문 남쪽에 있는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곳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총독의 관저였으며, 나중에 헤롯의 관저도 사용되었습니다. 주지사. 따라서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그런 일이 있었다면 비참한 길은 오늘날 성묘 교회가 있는 곳 근처의 성벽 바깥쪽 북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수께서는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 서쪽으로, 아마도 약간 남쪽으로, 골고다의 이 지역인 성묘 교회 지역까지 짧은 도보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전통은 적어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성묘 교회의 울타리 바로 안쪽에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성벽이 있던 곳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훨씬 더 후기 도시의 성벽 외부인 안토니아 요새에서조차 더 북쪽에 묻혔다고 생각합니다. 고든의 갈보리(Gordon's Calvary)라는 곳이에요.

나는 이 지역이 고든의 갈보리라고 불리기 전에는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안토니아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면(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길은 아마도 이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서쪽, 자파 게이트 남쪽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고 산책로는 이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든의 갈보리와 그와 관련된 장소인 정원 무덤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도에서 훨씬 더 위쪽에 있는 도시의 성벽 바깥 지역, 즉

현재 다마스쿠스 북쪽 지역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문. 따라서 그림을 보고 왜 사람들이 고든의 갈보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는 절벽, 즉 절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9세기 후반에 예레미야 동굴이라고 불렸던 다마스쿠스 문과 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고든 장군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곳을 보고 단순히 그곳의 부드러운 석회암이 침식된 방식 때문에 두개골이 있는 곳인 골고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눈, 코, 입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상상력을 사용하면 이미 확고한 확증 편향으로 해석을 방해하는 다른 특징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개골을 찾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 다시피 19세기 후반에는 다소 황량한 곳이었죠. 20세기 중반에는 맨 위에 있는 묘지인 아랍인 공동묘지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석의 지층은 풍화작용이 꽤 많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왼쪽 눈이라고 말할 것보다 훨씬 적은 바위가 보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많은 바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곳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바로 아래에 버스 정류장을 건설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묘지 건물이 있고 현대식 건물도 있습니다. 좀 더 클로즈업한 버전을 보면 왜 이곳을 두개골이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근처에 가보시면 그곳을 감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훌륭한 성공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거나 근처 무덤이 그분이 묻힌 곳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음과 같이 보였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좀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그 사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묘교회를 보면 그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고든의 갈보리(Gordon's Calvary)라고 불리는 서쪽으로 몇 백 야드 떨어진 정원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통해 이 통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곳은 구르는 돌이 입구를 덮었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이 수로가 훨씬 후대의 관개 수로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무덤이라고 부르는 것은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이것이 그리스-로마 시대가 아닌 첫 번째 성전 시대의 훨씬 더 이른 저수지라는 것입니다. 돌은 저수조를 만든 후에 채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을 한 덩어리씩 떼어내다가 웅덩이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이 모든 것이 단단한 돌이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저수조의 한쪽 벽을 파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단된 영역이 남게 됩니다. 정원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곳이 예수님이 장사된 곳이고 실제로 그랬다고 이미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고고학적으로 이 유적지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행된 고고학은 적어도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것이 두 번째 성전 부지가 아니라 첫 번째 성전 부지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묘 교회가 예수님이 묻혔던 장소라는 사실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전통은 고대 전통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루살렘 지도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회색 돔은 본질적으로 성묘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두 개의 돔이 있는데, 아래에 창문이 있는 작은 돔과 더 크고 넓은 돔이 있습니다. 건물에 도착하면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며, 다른 사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작은 돔이 있고 왼쪽에 더 크고 평평한 돔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장소와 예수께서 장사지낸 장소 위에 있습니다. 여기 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이 구역 아래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리는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이 거대한 원형 건물이 나옵니다. 이 곳에는 예수의 매장지를 덮고 있는 에디쿨(edicule)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묘 교회의 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막혀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우회전하여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돔 아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른쪽에 있는 더 큰 돔 아래에 있고, 위로 날아다닐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스러운 시간 동안 이 지역은 다양한 행렬과 기독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위로 튀어나온 커다란 탑이 보입니다. 아래에서 보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위에서 보면 돔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묘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이디쿨(edicule)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이 더 잘 보이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바로 그 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순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어안렌즈가 있다면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바로 이 봄에 최근에 단장한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리석 석판과 기타 장식 품목이 많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장사된 무덤의 암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의 마음과 양심이 당신을 따라가도록

이끄는 한 그 전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정확한 장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교회의 이 지역 서쪽에 있는 이디쿨 근처에는 때때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고학자들이 묘사하는 무덤들이 있는데, 이 벽감을 코크(kochs) 라고 부르거나 함께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기 코침 두 개를 불렀어요. 이것은 매장실의 내부였을 것이며, 복음서에서 말하는 구르는 돌은 이 방의 입구였을 것입니다. 시체가 묻혀 있는 틈새, 코크를 덮고 있는 구르는 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바로 성묘교회 내, 이디쿨의 바로 서쪽에 예수의 생애에 관한 시대의 무덤이 있는데, 그 시대의 무덤이 실제로 어땠을지 더 잘 알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다음과 같았을 것이라는 것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방 안의 문을 덮고 있는 구르는 돌은 시체를 묻었던 이와 같은 벽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파손된 슬픈 상태의 또 다른 비슷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의 백악질 석회암 바위는 사방에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리브 산의 서쪽 경사면에 있는 도미누스 플라비트 교회 부지에서 끝났습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무덤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입구의 정사각형 모서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시체를 매장할 장소인 코침 (Kochim) .

이런 종류의 무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전혀 드물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공부하면 이런 종류의 것을 볼 기회가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 부활 후 예수의 생애와 사역의 초기에 부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장 1-11절은 우리에게 고기 잡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도망친 고기의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조언에 따라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따르면 많은 물고기 떼를 잡았는데 그 중 약 153 마리였습니다.

21장 1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이르기를 주목하라 우리가 이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음이 분명하니라, 이제 우리는 갈릴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공관복음 전통과 관련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두 명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다른 제자들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러 간다고 말할 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적 사명을 어떻게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거나, 베드로가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거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너무 심해서 예수께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는 상업 낚시 경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 내용을 너무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베드로는 사도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라인을 따라 뭔가.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피터에게 그 모든 비영적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4절에 따르면,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물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분이 예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물고기가 있나요?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날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여전히 밤에 고기잡이를 좋아하고 아침에 고기를 잡는 것보다 밤에 고기를 잡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갈릴리 바다는 물론이고 어느 곳에서도 낚시를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고기잡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물을 저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6절에 따르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들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직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먼저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겹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바닷가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거대한 그물을 끌고 천천히 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물고기와 빵을 얹은 숯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10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가져옵니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

그 양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매우 무섭습니다.

이군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20장으로 묶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장 횟수를 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정말 당신이군요'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 그들은 단지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이고, 말하자면 코끼리는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관한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절에서 시작하여 16절에서 계속되고, 17절에서 세 번째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매번 긍정적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마음이 상했을 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도적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 상쇄하고 세 번 확인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일을 지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스스로 옷을 입었습니다. 네가 늙으면 손을 뻗으면 다른 사람이 네게 옷을 입혀 주리라. 다른 사람이 당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 문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좀 무서운 것 같죠? 그리고 종종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신 대화이며 모든 것이 잘되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한 설교 본문입니다(21:15-19). 그러나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면서 약간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20-2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님, 베드로의 말에 누가 주님을 팔아넘길 것인가?'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이 책의 저자로 여겨지는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 사이의 다소 흥미로운 관계를 봅니다. 그러면 피터는 그 사람은 어때요?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어떤 경쟁 관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성격은 서로에 대해 일종의 마모가 있었고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대하는 가장 전형적인 친구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헌신은 그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인 그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분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따라야 하며, 그가 19절과 복음서 훨씬 이전 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22절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이러한 교류로 인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는 만일 그가 실제로 여기에 자료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

그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너랑 상관 없어. 그게 당신에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24절과 25절에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얻습니다. 여기서서는 그것을 저자의 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물었던 바로 그 제자인데, 그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가장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사랑하는 제자가 저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책에 나오는 다른 많은 사건의 목격자였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전 장의 마지막 구절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21장 25절. 우리는 이미 20장 30절에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징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책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다 기록된다면 온 세상이라도 기록되어야 할 책이나 기록할 수 있는 책을 모두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것은 저자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정보에만 국한시켰다는 20장과 31절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을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그 이상으로 확장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멈출 수 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책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 다소 슬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이 마지막 두 장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명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지 않고 단지 19장 25절에서 그녀에 대해 몇 가지만 배울 뿐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요한의 전통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an Brown의 소설 The Da Vinci Code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크게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책을 쓰고 그녀와 매우 구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업계 전체에 존재합니다. 그녀에 관해 매우 추측적인 일을 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다소 관음적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의 남성 성원들은 다소 금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에 대한 무시무시한 세부 사항을 과장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글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면, 신약성서로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것의 많은 부분이 매우 추측적이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초반부와 심지어 21장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또 다른 주제는 제자들의 이해 부족입니다.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아직도 성경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2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자신이 행하신 이 다소 강력한 행위를 확증하기 위해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할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 주시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청중은 이를 믿을 수 없었다.

헤롯의 리모델링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6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3일 만에 올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부활 후에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고 부활 후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부활의 실체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 문제는 예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는지 아니면 단지 그분이 그들을 다시 보게 되리라는 그분의 말씀의 일반적인 취지가 그들이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야 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내 생각에 적절한 또 다른 본문은 12장에 나오는 승리의 입문 본문인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당나귀를 타고 계시는데, 그 주위에는 비슷한 루브릭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12장 16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예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14장 26절에서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라.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7장 39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의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조금 후에 나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당신이 나를 볼 동안.

그러므로 공관복음에서처럼 거의 명백하고 명확한 부활 예언을 하는 대신 요한은 좀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관복음 전통에서보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에서 제자들의 이해 부족이 훨씬 더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이 장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20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책의 이전 예언을 생각해 보면, 1장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7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의 가장 깊은 존재로부터 성령이 다른 개인들에게 흘러가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나는 그 텍스트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서 성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John에게서 이미 배운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생각에 이 구절에서 약간의 놀라움과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관복음 전통에서, 특히 누가복음 24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이어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후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칠칠절인 부활절로부터 50일 후인 오순절이 완전히 도래한 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이 있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날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전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는 방식과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받는 방식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관점은 아마도 서너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전통은 모순적이며 성령의 오심에 대한 전통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전통이 있는 일종의 초기 기독교의 한 가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틀려야 합니다. 나는 그 입장을 취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요한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통찰력, 영적인 이해와 통찰력을 공급할 일시적인 성령의 부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령을 완전하거나 완전하게 받거나 보다 영구적으로 성령을 받게 될 오순절까지 이르게 할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성령의 부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 하나가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인 성경 신학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 일어날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 묘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얹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연기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그는 그들에게 이것이 실제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말하자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내 생각에 호흡을 뜻하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단어는 바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성령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를 말하든, 그리스어로 프뉴마를 말하든, 우리가 성령과 호흡이나 바람에 대해 말할 때 여기서는 약간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요한과 누가

사이에 일종의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이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며 내가 방금 제안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뿐이었다면 우리는 오순절 날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엄연히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나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책, 하나의 성경, 섭리로 모든 저자를 인도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영적으로 인도하신 한 주님을 발견할 때, 때때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에서 통일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나에게서는 동의 여부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분석에서 신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여기 복음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적어도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오순절 날에 일어날 일을 실제적으로 예언하신 인물입니다. 물론 토마스와의 상호 작용은 우리가 이미 책에서 너무 많이 설명했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토마스와의 상황은 시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또 다른 사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해야 합니다. , 당신이 원한다면 표시에 기초한 믿음. 사실, 30절 20장에서 예수께서는 다른 많은 표징을 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는 마치 그의 부활이나 적어도 부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이 11장에서 나사로의 절정 부활과 나란히 놓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표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는 요한복음의 반복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표적을 통해 믿음에 이른 일부 사람들이 완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충분히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진정한 이해가 아닌 일종의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으며, 그분의 사역의 성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각에 그 모든 것은 8장, 즉 8장 후반부에서 가장 분명하게 정점에 이르렀고, 2장 끝에서 처음으로 그 문제가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행한 표징은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식한 것으로 대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여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징에 대해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것은 사실이며, 표징에 기초한 믿음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결함이 있는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표적 너머의 인물, 사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아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그들이 이미 원했던 종류의 메시아만을 본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미 그들의 문화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조건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확증 편향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보도록 손질된 사람을 표지판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표징을 통하여 참된 믿음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어떤 표적과 상관없이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여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위대한 예술가 카라바조(Caravaggio)가 그린 토마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토마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예수님의 몸통을 열심히 응시하고 실제로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몸에 삽입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왼손에도 못 자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고전 예술 작품들이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시각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매우 다른 유형의 예술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호수에서 만나서 배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지시하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땅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 그곳에서 평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기념할 장소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 간다면, 가버나움 남서쪽, 타브가보다 더 서쪽인 미그달 교차로 모퉁이에 성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막달라 유적지. 바닷가에 있는 이 작고 검은 돌 교회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이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방금 본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건축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에서 수위가 다소 낮고 교회 주변에 돌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본 다른 사진에서는 바로 여기 교회 옆에 있는 바위만큼 높이 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꼭대기 위에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큰 바위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기반암이 노출된 부분이므로 일단 교회에 들어가면 이 바위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교회의 제단. 사실 오늘 거기에 들어가면 성벽 밖에 있던 바위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고 그 바위 바로 위에 성벽을 쌓은 곳이 라틴어로 멘사 크리스티(Mensa Christi), 즉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 무엇이든 구워주신 바위를 기념하려는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을 보고 '글쎄, 이곳이 그 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곳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 21장을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일과 공관복음 전통의 관계가 흥미롭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위임하는데, 이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요한복음 20장의 위임에 비추어 보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전통을 하나로 묶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을 깊이 조사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더 완전하게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끌리는 곳이라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탁월성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20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둘 다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더 빨리 달려가서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베드로가 도착하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터가 낚시하러 가자고 제안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그의 명성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자 3절에서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물을 저편으로 던지라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사랑하는 제자는 가장 먼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성격을 안다면 이 모든 것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잘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는 어떤 식으로든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베드로의 탁월함은 흥미롭습니다. 특히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세 번 물으심으로써 베드로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이 표현되는 방식과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 반복하는 이유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서 베드로와 예수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가르침과 사용된 다양한 그리스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디오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어를 조금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구절이 자주 가르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분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르칠 때 제기되는 주요 사항은 여기에 사랑을 뜻하는 두 가지 다른 그리스어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가파오 (agapao)이고 다른 하나는 필레오(phileo)입니다.

아가파오(Agapao) 는 종종 의지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의지적인 헌신에 기초한 사랑과 관련이 있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그 맥락에서 감정적인 종류의 사랑이나 매우 열렬한 종류의 사랑, 매우 깊고 깊게 느껴지는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유형이며, 반드시 이성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이성적인 사랑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금 말한 것은 단지 그 단어의 용법 중 일부에서 추론한 것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완전히 상호 교환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상호 교환 가능한 방식으로 자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용어 색인을 얻고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연구한다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검색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 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우 동의어적인 패션. 아가파오 종류의 사랑은 신성한 사랑이고, 필레오 종류의 사랑은 인간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인간이 아가파오 라는 본문이 있고 ,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필레오스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어원을 파악하고 단어 안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마법적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발견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맥에서 단어가 발견되는 의미 범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마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랑의 유형을 구별하려는 방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휘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텍스트를 더 읽기 흥미롭게 만드는 문학적 방법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러자 피터는 "네,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종종 예수께서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피터는 "그래, 일종의"라고 반박한다.

즉,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신성한 종류의 사랑이나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헌신 사랑의 수준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가 말하는 것은 '예, 당신에 대해 기분이 좋습니다'입니다. 응, 응, 난 당신이 그런 성격을 따라 뭔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마침내 이렇게 한 번 묻고 이 대답을 받고, 두 번 묻고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을 얻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터는 세 번째로 '예,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대한 해석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하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썄요, 저는 그런 것은 없지만 이것만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만큼 가져가겠습니다.

아마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용된 두 단어 사이의 상대적으로 추측적인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문체 목적을 위한 문학적 변형으로 분류하고 이 구절의 요점이 여기서 단어를 깎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의미에 대한 더 자세한 요점이 있지만, 예수께서 그 일이 세 번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여기서 베드로의 코를 문지르시며 그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터에게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끔 터프한 사랑이라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했던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조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에게 양을 먹이고 자기 백성을 돌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을 약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베드로의 머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대신, 여기서는 명백한 사실만 고수합시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과 사랑을 세 번 확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랑에 사용되는 다양한 단어에서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이 양을 돌보는 데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피터에게 본질적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때.

당신이 내 추종자들에게 헌신하지 않고는 나에 대한 당신의 헌신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다시 위임하는 당신의 사명은 양들을 돌보고 내 백성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백성을 무미건조하게 남겨 두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세 번이나 펼치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자, 보살핌, 목초지 등을 번역하는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bosko 라는 단어와 poimino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심지어 양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 생각에 양들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아르 네온(arneon)에 대해 말하고 있고, 성숙도에 관계없이 양 떼와 더 많은 관련이 있는 단어 프로비톤(probiton)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여기서 그분이 작은 교회를 돌보고 어른들도 돌보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단지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지루해지지 않도록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약간 섞어서 읽기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베드로의 부인을 참으시고 나중에 그에게 다시 돌아와 본질적으로 그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양 떼를 돌보도록 다시 위임하십시오. 나는 지금 죄와 관련하여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내가 정말로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내가 정말로 이 일을 뒤로 미뤄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여러 번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행한 일을 용서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도 용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와 은혜의 깊이를 정말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을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께 다시 사명을 받은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서 용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옛 찬송가에서 표현한 것처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여기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돌봄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것임을 깨닫고 이 본문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분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 그분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신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토마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피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꽤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베드로처럼, 그의 모든 성급함, 그의 모든 인내심 부족, 그의 모든 성급한 말, 때로는 옳고 때로는 그름으로 인해 베드로는 언젠가는 팔을 뻗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업무를 처리하세요. 실제로,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그렇게 해줄 것이며 그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그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언젠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할 것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Caravaggio는 Peter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가 손에 있는 큰 못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다지 예쁜 사진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피터를 보면 그의 얼굴 표정이 마치 추억인 것 같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팔을 뻗을 날에 대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수집하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머리를 숙인 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초대 교회 전통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밧줄을 당기고 십자가를 곧게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다른 텍스트에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이 그 관행의 역사적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더 완전히 찾아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요한복음 21장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메모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문학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줄거리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중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즉, 베드로는 요한의 여기저기서 많은 부분의 초점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완전한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초기 추종자 중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21장에서 그는 사역으로 회복됩니다.

확실히 요한이 기록할 당시, 아마도 1세기 말이나 그 무렵, 베드로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이해되었을 때,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사명은 강화되었을 것이고 교회에서의

그의 지위는 이 본문에 의해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가 수행한 상호보완적 역할을 어느 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세기 후반에 교회 내의 다양한 파벌, 다양한 그룹, 다양한 지리적 지역에 의해 보였을 것이며 아마도 이로 인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로마에 묶여 있다. 결국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소아시아 서부의 에베소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요한에서의 사랑받는 제자와 베드로의 역할이 이렇게 결론이 나고 완전한 원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적으로, 우리가 이전 본문과 훨씬 더 중요하게는 다음 본문에 비추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는 베드로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 15장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매우 뛰어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여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바울이 나중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묘사했으며 그것이 실제로 그의 사역이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곳에서 곧 등장하게 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며 이방인들의 사도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15장까지 계속 읽으면 교회의 인구 통계와 이방인의 침입,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 동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의 사역이 참으로 우리가 교회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바울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 들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그 지점까지 크게 등장합니다. 나는 개신교에서 우리가 흔히 바울을 우대하고 베드로를 심하게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베드로의 성경 신학, 복음서에서 그가 맡은 두드러진 역할,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적어도 책 중간까지 그가 초기에 교회를 이끄는 방식을 볼 때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베드로가 그의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남긴 두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로마의 첫 번째 주교로 생각하든 아니든, 그 이상으로 생각하여 베드로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사도적 계승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베드로에게 초대 교회와 성경 신학에서 그의 역할에 합당한 탁월함을 주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이미 알아야 할 것을 매우 가슴 아프고 분명한 방식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 진리를 세 번이나 제시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예, 예, 예. 좋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 사람들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확실히,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분의 사명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임무의 일부.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점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심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David Turner입니다.

20 회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입니다.